

## 8) 사이클

우리나라 최초로 자전거경기대회가 열린 것은 1906년 4월 22일로 당시 육군 참위였던 권원식과 일본인 요시카와가 훈련원에서 경기를 하였다. 당시 자행차라고도 한 자전거가 개화적 산물의 상징이었던 만큼 일반의 관심도 지대하였다. 1907년 6월 20일 경성 안의 자전거상회 주최로 훈련원에서 외국인들도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경기대회가 열렸다.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주최의 전조선자전거경주대회가 1913년 4월 12일, 13일, 27일에 거행되었다. 이 대회에서 일본인 선수 일행 4명과 우리나라 선수 사이에 선수권 쟁탈전이 벌어졌으나, 마침내 우리 선수가 이기자 국민들의 환호와 감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27일 평양역전광장에서 열린 일본 선수와의 연합경기에서는 1위에 엄복동, 3위에 황수복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당시 일제의 침략야욕 앞에 국운쇠퇴를 겪으며 일제에 대해 복합적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터라 우리 민중의 감격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비록 자전거경기라는 제한된, 그리고 당시로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기였지만, 이 대회가 민족적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엄복동은 국민적 영웅 칭송을 받았다. 이 대회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자전거경기 이상의 의미와 자극을 주었다. 이후 자전거경기는 급속히 확산되어 오늘날 아시아권의 자전거 종목에서 한국이 강자로 군림하는 전통적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이 고장에 사이클이 보급된 것은 이곳 출신 김관룡 선수가 1936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때부터였다. 이듬해 전조선자전거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하여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였으며 하얼빈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후 그는 이 지역 후배 양성에 크게 공헌하였다.

1947년 6월 7일 남조선자전거경기대회를 순천에서 개최하였다. 이때 1만m 에서 김관룡 선수가 우승하였으며 7500m 에서는 군산 출신 정석이 우승하였다. 오경옥은 1948년 조선자전거선수권대회 학생부 우승을 시작으로 1952년 제33회 전국체전 500m 우승, 1953년 전국학생선수권대회 1000m 우승, 1954년 제35회 전국체전 5000m 우승, 그리고 1954년에 올림픽 후보선수로 활약하였다. 또한 김병준은 1961년 제42회 전국체전에서 1000m 3위, 제43회 전국체전에서 1000m 2위를 차지하였으며, 순천농고 사이클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는 김진식이 1960년 전국자전거선수권대회 1600m 우승과 1962년 전국도로경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1966년 제47회 전국체전 5000m 에서 7분 39초 7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올림픽 후보선수로 뽑혀 활약하였다. 또한 백진석은 제43회 전국체전 500m 3위, 제44회 전국체전 3000m 3위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순천사이클협회 회장으로 사이클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1979년 전국대회 입상선수들은 순천공고의 박동환, 삼산중학교의 김종원·남근원·조관식·이희철 등이며, 1980년대에는 순천공고에서 사이클부를 창단하였다. 1984~1986년에 활약한 선수는 정점식·송홍우·임승빈·홍관표·박경춘 등이다.